

16/01/03(주) 주일예배 / 제목 :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롬 8:31~39) p.250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들어가는 말 /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 2008년 5월 23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무엇을 해 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8.5.12 오후2시. 중국 쓰촨성 대지진 - 엄마의 사랑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아기의 이야기)

13일 중국 쓰촨성에 있는 베이촨의 한 무너진 가옥에서 구조대원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마치 절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릎을 꿇고, 윗몸을 구부린 채, 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위에서 쏟아져 내린 건물 잔해에 짓눌린 탓인지, 허리가 많이 무너져 있었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가 결사적으로 품고 있던, 노란 꽃무늬가 그려진 빨간 포대기에선 3~4개월 된 아기가 상처 하나 없이 새근새근 숨쉬고 있었다. 한 의사가 그의 품을 헤쳐 포대기를 들어 올리자 아기는 곤한 듯 잠에 빠져들었다. 포대기에서 휴대전화가 빠져나왔다. 의사는 무심결에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봤다. 거기엔 “사랑하는 아가야!”로 시작하는, 젓먹이에게 남긴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 그 모성애가 눈물 겹도록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젓먹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지라 사랑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젓먹이는 다행히 목숨은 살려냈지만 엄마는 사망했기에 더 이상 그 젓먹이를 책임져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4:8)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시므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1.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1, 33~34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칭의(稱義)’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33~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송사한다’는 말은 사람의 모든 잘못과 불의와 불법한 사실을 다 기록하여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과거 뿐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 송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시며, 이미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선

연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인정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하든 기죽지 말고 늘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1.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2.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2절)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아끼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수사어문문 형식으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31~33을 보십시오. (마6:31~33)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걱정될 수 있지만, 진정한 노후대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1.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2.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5~39절)

35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35~37절)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본문 36절은 시편 44:22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요16:33)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 당시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저런 핍박과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7가지(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의 상세한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 곤고-행동이 제한된 상태(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 적신-헐벗음(벌거벗은 알몸뚱이)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끔찍한 살인사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살인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부모들의 걱정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책은 세워야겠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부모라도 책임 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험한 세상이지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38~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무려 9가지나 되는 이 땅에서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해 주시므로, 이외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요일 4:8,11)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분명하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의 변화가 없다면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흔히 헬라어 단어로 ‘아가페’(αγαπη)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맞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Hellen A. Keller / 1880~1968, 87세 향수)를 잘 아시죠. 그런데 그의 배후에 **인스퍼낸스**(Anne Sullivan)이 있고, 또 그 배후에는 **로라**(Laura)라는 老 간호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릴레이가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 삼중 장애인이지만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를 키워준 설리번 선생입니다. 거의 50년간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도와준 분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설리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로라**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라라는 이름은 생소하죠?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인스퍼낸스**’입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소녀는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날마다 자살을 기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 결국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에 격리 수용됩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치료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老 간호사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특별한 치료보다 그냥 친구가 되어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책을 읽어 주고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담벼락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 한 개가 없어집니다. 앤 설리번이 집어먹은 겁니다. 용기를 얻은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 주고 기도해 줍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이야기를 하더니,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맹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도 뜨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 볼 보모를 초빙합니다!” 앤 설리번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 낸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 간호사였던 로라나, 앤 설리번 같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온 세상에 ...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인정, 공급,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 됩시다.

요약정리 /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1.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2.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